

「또다른 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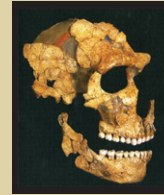
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

일시_ 2012년 8월 14일(화)~2013년 2월 17일(일)
장소_ 검단선사박물관 기획전시실

C·O·N·T·E·N·T·S

- 04 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
- 05 구석기시대 매장형태
- 06 죽음을 알다 ; 중기 구석기인들의 매장
- 12 죽음에 장식하다 ; 후기 구석기인들의 매장

전시를 개최하며



모든 생명체는 죽음이라는 숙명을 안고 태어난다. 하지만 죽음에 대해 인식하고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는 인간만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인식과 죽은 이의 시신을 그냥 두지 않고 장례라는 구체적인 행위절차를 통해 매장하는 풍습은 언제부터 행해졌던 것일까. 이러한 궁금증에서 출발한 이번 전시는 죽음에 의미를 부여한 최초의 인류인 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에 대해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전시는 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과 관련하여 <1부> '죽음을 알다-중기 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 <2부> '죽음에 장식하다-후기 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 으로 구성하였다. 세계 유명 구석기유적에서 발굴된 매장 인골과 부장품을 통하여 구석기인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과 풍습이 현재의 우리와는 상당히 멀지만, 그러나 결코 낯설지 않은 것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전시품은 인류의 가장 오래된 매장 흔적으로 평가되는 이스라엘의 '카프제 동굴 유적', 1979년 프랑스에서 발견된 네안데르탈 화석인 '생 세제르 유적', 후기 구석기시대 매장 유적 가운데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이탈리아의 '카비옹 유적' 등에서 발굴된 매장 인골이다. 이들은 실제 유물과 같은 크기로 현지에서 복제한 것이다.

이번 전시는 공주석장리박물관과의 순회교류전으로 석장리박물관에서 2010년도에 개최했던 것을 우리박물관에서 전시함으로써 선사문화교류와 함께 향후 양기관의 교류에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전시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석장리박물관과 목포대학교박물관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2년 8월
검단선사박물관장 김 상 원

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

죽음에 대해 인식하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특별한 표시를 하는 행위는 인간만의 특징이다. 그렇다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인식과 이를 초월하려는 시도는 언제부터 행해졌던 것일까. 또한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죽음을 경험한 것은 언제부터였을까.

이러한 질문을 해결해주는 실마리는 구석기시대에서 찾을 수 있다. 초기 인류들이 가족과 동료들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법으로 매장했는지는 인류진화를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이다.

죽은 이의 시신을 그냥 두지 않고 장례라는 구체적인 행위절차를 취해 매장했음은 인류가 진화하는 과정을 통해 뇌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인지능력이 향상 되어온 결과이며, 이는 집단 구성원의 죽음에 대해 특별한 관념을 부여할 만큼의 추상화 능력도 지니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구석기시대는 그 시대를 짐작할 만한 흔적들이 불충분하여 많은 부분이 베일에 싸여있다. 이런 상황에서 구석기인들의 매장 유적에서 엿볼 수 있는 증거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과 의식을 일부나마 밝혀주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매장(埋葬, burial)

고고학적 연구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10만년 전 중기 구석기시대부터 인간이 죽음을 깨닫고 시신을 의도적으로 매장하였음이 밝혀졌다.

- 사람의 뼈대가 해부학적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때 죽은 뒤에 바로 묻었음을 의미
- 구덩이를 파거나 바위 틈 등에 의도적으로 죽은 사람을 안치
- 돌이나 흙을 덮어 의도적으로 보호함

구석기시대 매장형태

매장장소 : 당시 사람들이 살던 살림터 주변으로 동굴, 바위그늘, 구덩이 등

매장인원 : 1명 / 2명 / 3명 또는 집단

매장방향 : 일정치 않음

매장방법 : 끈게 퍼묻기 / 살짝 구부러묻기(일명 '수면자세') / 심하게 구부러 묻기

껴묻거리(부장품) : 석기, 뼈연모, 동물뼈 등이 함께 출토
예외적인 물품인 경우껴묻거리로 인정

시기에 따른 매장방법

- 중기 구석기시대 : 다양한 형태의 매장 유구 확인, 동물뼈 및 석기 등 간단한 부장품
- 후기 구석기시대 : 중기 구석기시대 보다 자료가 많이 남아 있음
구덩이 안에 안치하는 경우가 대부분
치레걸이, 무기, 예술품 등껴묻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음
붉은 흙을 시신 주변에 뿌리는 경우가 많음
돌이나 큰 짐승의 뼈로 시신을 덮어서 보호



동물들도 죽음을 알까?

개, 갈가미귀, 오랑우탄, 침팬지는 모두 사별의 표시를 한다고 한다. 다른 영장류에서도 어미와 유아의 유대가 끊어지면 풀죽은 기색이 나타나는 등 행동의 동요가 일어난다. 침팬지의 경우 어미가 죽으면 그 새끼들은 만사가 귀찮은 듯 무기력해지며 심지어는 신체 발달이 더뎠기도 한다.(Goodall, 1986). 그러나 그렇다고 영장류가 인간처럼 죽음을 인식하고 시신을 처리할 수 있을까? 침팬지를 비롯한 여타 고등 영장류가 인간과 생물학적으로 가깝다고는 하지만 시신을 향해 복잡한 행동에 빠지는 일은 전혀 없어 보인다. 그저 시신을 버리고 떠날 뿐이다.

I. 죽음을 알다

; 중기 구석기인들의 매장

네안데르탈인과 매장

네안데르탈인은 25만년 전에 유럽과 아시아 대부분 지역에 분포해 살았던 선행(先行)인류로 약 3만년 전에 멸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안데르탈인들이 보여준 가장 놀라운 문화 가운데 하나가 매장의식이다. 적어도 네안데르탈인 이전의 인류에게서 매장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죽은 사람을 땅에 묻는 매장행위는 그 당시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당시 사회에서 사용했던 물건들이 무덤에 함께 묻히기 때문이다. 네안데르탈인의 무덤에서는 인류가 제사의식 또는 의례를 행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이 최초로 발견되었는데,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다.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 지역 근처에서는 매장된 네안데르탈 소년의 뼈가 발견되었는데 그 주위에는 흩어 원모양으로 놓여있었다. 이것은 특정 동물이나 식물을 집단의 상징으로 섬기는 토템신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부 이라크 산악지대에 위치한 샤페르 동굴 유적에서는 어린이 시신에 흩뿌려 놓은 야생화가 발견되어, 꽃을 이용한 장례행위가 있었음을 알게 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성을 들여 죽은 사람을 묻는 행위는 인간 개인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아마도 네안데르탈인의 머리뼈가 직립원인보다 훨씬 커진 것은 사고능력뿐 아니라 감정능력의 발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감정능력은 집단의 결속력을 다지는데도 기여했을 것이다.



▲ 동물 머리뼈를 부장품으로 넣는 모습(상상도, 중기 구석기시대)



▲ 생 세제르(Saint-Césaire)유적 매장 상상도

중기 구석기시대와 무스테리안 Mousterian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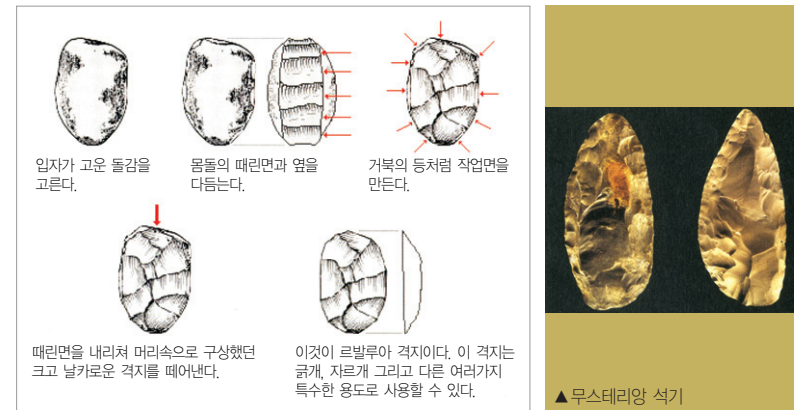
중기 구석기시대의 인류는 뇌용량의 평균치가 1,100cc에서 1,400cc로 증가했고, 머리뼈의 생김새가 달라졌으며 집단의 인구가 증가하였다.

특히 도구제작에 있어 기술적인 진보가 두드러지는데 가장 특징적인 발전은 박편 혹은 격지(flakes)를 석기로 사용하는 비율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돌감을 가공해서 몸통을 주먹도끼로 사용하고 떨어져 나간 격지들은 그냥 버렸다. 그러다가 격지 그 자체도 석기로 사용하게 되었고, 새로운 기법들이 나타나서 격지를 정교한 석기로 만들 수 있게 되었다. 그러한 제작기법 중의 하나가 르발루아 기법*이다. 이 기법은 돌감을 일차적으로 다듬어서 마치 거북의 등처럼 생긴 석편을 만든 후 때린면에 한 차례 가격하면 더 이상 다듬을 필요가 없는 넓고 날카로운 격지가 만들어지는 기법이다.

프랑스의 무스티에 동굴에서는 르발루아 기법으로 제작된 다양한 도구들이 출토되었고, 중기 구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이 석기들의 양식을 무스테리안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르발루아 기법 : 네안데르탈인의 대표적인 석기 제작방법

전기 구석기와는 다른 독특한 몸돌과 격지가 파리 교외에 위치한 구석기유적인 르발루아에서 발견되고 정의되면서 그 지역 이름을 따서 불리워진 석기 생산방법이다. 이 기술은 20만년 전 유럽의 중기 구석기 문화를 대표하며 일부 전기 구석기시대의 석기 제작기술과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 르발루아기법(Levallois techniq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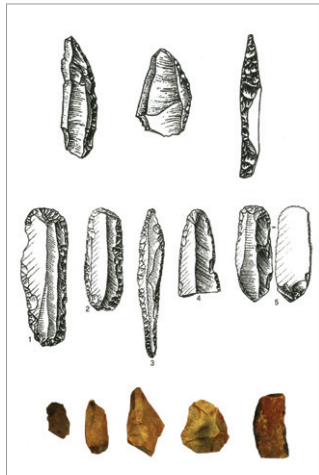
③ 마지막 네안데르탈인

; 생 세제르 Saint-Césaire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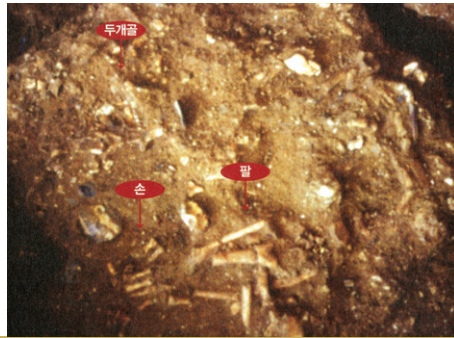
- 시 대 : 중기(4만년 전~3만 5천년 전)
- 유적위치 : 프랑스 생 세제르 마을

1979년에 발견된 네안데르탈 화석으로 문헌 사람의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젊은 성인 이고 뼈대가 전반적으로 가는 점으로 미루어 여성으로 여겨지며, 전형적인 네안데르탈인의 머리뼈 모습을 보여준다. 인류 화석은 반경 70cm 가량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소수의 석기가 사람뼈와 함께 발견되었다. 사람은 완전히 구부린 상태로 매장된 듯 보이나, 유적의 퇴적층을 따라 흐르던 물의 영향으로 많은 뼈들이 상해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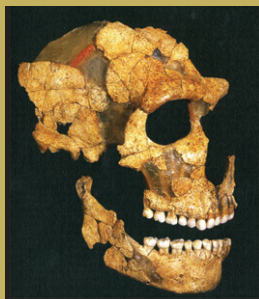
구덩이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발굴 당시 의도적으로 주변을 정리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었고, 해부학상 뼈들이 제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인위적인 매장인 것은 분명하다. 생 세제르 유적은 가장 늦은 시기의 네안데르탈인 무덤으로 '마지막 네안데르탈인'이라 불리기도 한다. 이 유적의 발굴로 한때 네안데르탈인과 현생인류가 유럽에서 공존 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출되었으나 현재 그 가설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



▲생 세제르 유적 출토 석기



▲머리뼈세부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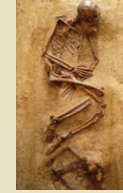
머리뼈 복원 모습 ▶

유적 위치도



라 샬 오생 유적

60세 가량 된 남자로 생전에 관절염을 심하게 앓았고 치아도 거의 없는 상태이다.



카프제 유적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매장 인골로 중기 구석기의 유일한 합장 형태의 인골이다.



생 세제르 유적

네안데르탈인의 화석으로, 이 유적이 발견됨으로써 이들과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공존하며 살았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그로프 데 장팡 유적

성인 여자와 청소년 남자가 함께 매장되었다.



아렌느 캥디드

화려한 머리장식과 목걸이 등의 장신구들로 치장을 하고 있어 '구석기시대의 왕자'로 불린다.



카비옹 동굴 유적

성인 여자로 머리를 조가비와 사슴 송곳니 등으로 장식하였다. 구석기시대 가장 뛰어난 매장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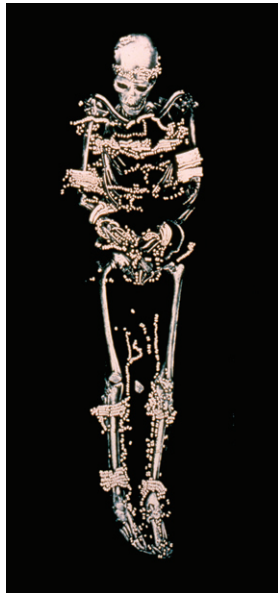
Ⅱ. 죽음에 장식하다 ; 후기 구석기인들의 매장

후기 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

사람들이 죽음을 삶과 이어지는 상태로 인식하였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는 단계로 접어드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4만년 전인 후기 구석기시대부터이다.

후기 구석기시대의 매장 유적은 중기 구석기시대보다 매장 방법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남아있다. 시신들은 명확하게 파낸 구덩이 안에 놓여있으며 부장품들이 수반되기 시작하는데 이중 다수는 시신이 착용한 장신구였다. 장신구로 가장 많이 쓰인 것은 구멍 뚫린 조가비이다.

이 조가비들은 수 백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주운 것들로 머리장식, 목걸이, 팔찌 등을 꾸미는데 쓰였다. 또한 시신의 주변에 붉은 흙을 뿌리는 경우가 많고 돌이나 큰 짐승의 뼈로 시신을 덮어서 보호하기도 하였다.



◀ 러시아 송기르 사람(Sungir):
시신에 맘모스 상아를 깎아 만든 구슬로 장식된 옷을 입혔다.



▲ 조가비 세부 이미지(카비옹 유적)

후기 구석기-현생인류의 등장과 문화적 도약

중기 구석기에서 후기 구석기로의 문화적인 변화는 몇 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석기 제작방식의 변화
돌날석기 제작기술의 등장과 발달은 현생인류의 생활을 완전히 바꾸는 기술혁명이었다. 가늘고 긴 돌날을 떼어낸 후 그 돌날 자체를 석기로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잔손질 기술로 원하는 도구를 손쉽게 제작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이 돌날석기 하단부에 나무나 뼈를 손잡이로 연결하여 다양한 도구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 뼈, 뿔, 상아 등의 도구가 나타남
- 지역적으로 도구양식의 분화가 심화됨
- 동물의 이빨, 조개, 뼈와 돌, 상아로 만든 장식품이 나타남
- 사실주의적 표상을 나타내는 예술(동굴벽화, 조각품)이 등장
- 인구밀도가 증가하고 전문화된 수렵으로 변화
- 지역집단의 규모가 증대함에 따라 집단의 조직과 취락의 구조가 체계성을 띠

현생인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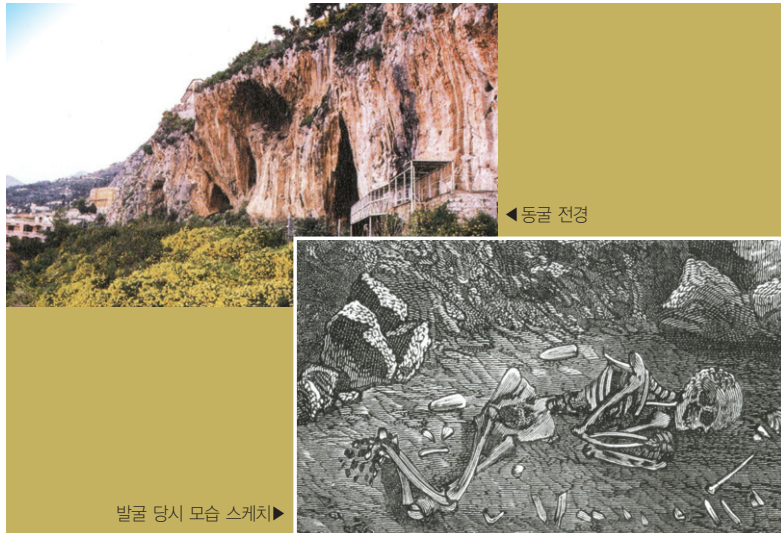
인류진화에서 최종 단계의 인류로 학명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Homo sapiens sapiens)이다. 인류의 진화단계를 원인(猿人)·원인(原人)·구인(舊人)·신인(新人)으로 분류하였을 경우에 가장 새로운 단계에 해당된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류는 모두 신인에 속하는데, 그 출현은 4만년 이상은 되지 않았고 문화면에서는 구석기 문화에 속한다.

① 구석기시대 가장 뛰어난 매장

; 카비용 동굴 *Grotte des Cavillon*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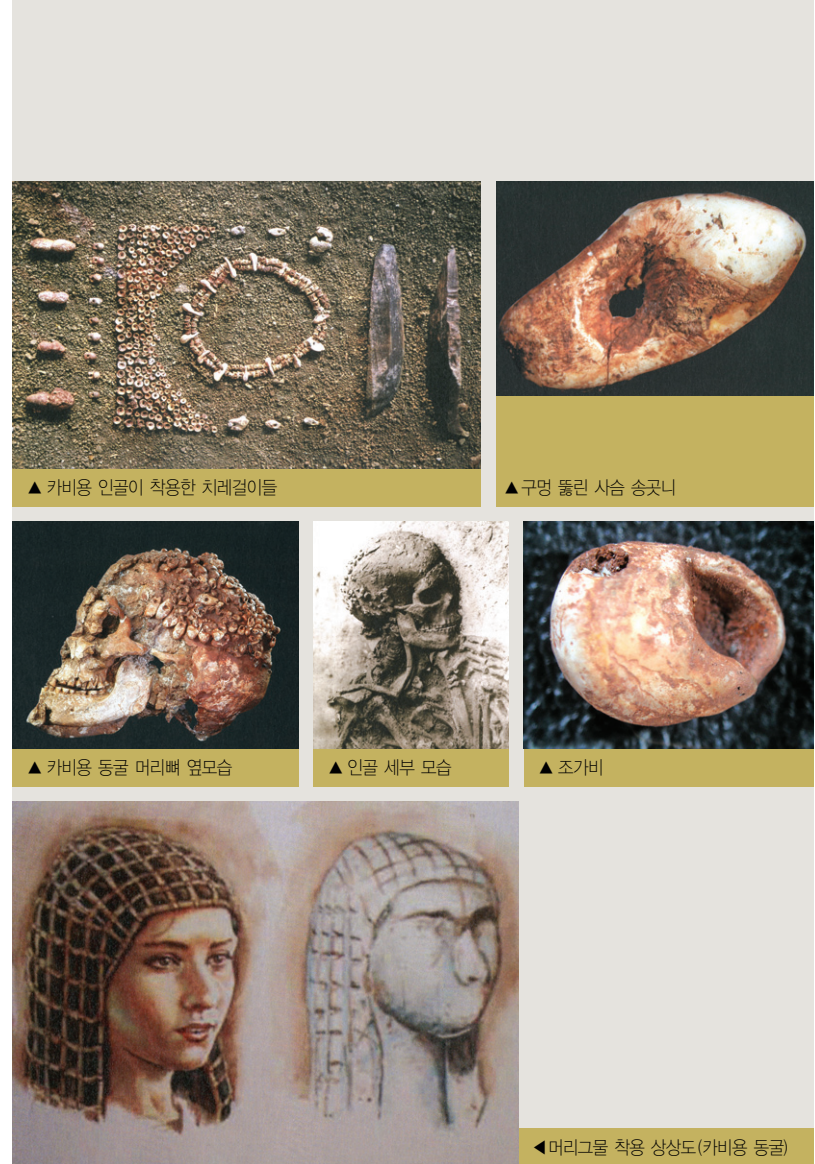
- 시 대 : 후기(2만 5천년 전)
- 유적위치 : 이탈리아 발지 로시
프랑스와 이탈리아 접경 지역에 위치한 동굴군 중의 하나로 카비용 유적외에도 그로뜨 데 장팡, 바르마그란데 유적 등이 있음

카비용 유적은 길이 19m, 너비 9m 크기의 동굴로 전시된 매장 인골은 1872년에 발굴되었다. 매장 인골은 성인 여자로 왼쪽으로 살짝 구부린 자세로 누워있다. 머리에는 많은 양의 조가비와 구멍 뚫린 사슴 송곳니로 장식된 머리그물을 쓰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머리뼈 뒤쪽에는 돌날 두 점이 붙은 채로 발견되었다. 또한 왼쪽 무릎에도 41개의 조가비로 만든 치레걸이를 착용하고 있었다. 사슴의 송곳니는 당시에 매우 귀중한 것이어서 돌이나 뼈로 모조품을 만들 정도였다. 사슴 한 마리에서 단 두 개 밖에 얻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머리그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슴 열 마리가 필요하였다. 또 한 가지 후기 구석기시대 매장 인골에 자주 등장하는 붉은 산화철이 발견되었는데 특히 머리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붉은 산화철의 붉은색은 재생의 의미로 해석되며, 또한 시체가 급속하게 부패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였다.



◀ 동굴 전경

발굴 당시 모습 스케치▶



▲ 카비용 인골이 착용한 치레걸이들

▲ 구멍 뚫린 사슴 송곳니

▲ 카비용 동굴 머리뼈 옆모습

▲ 인골 세부 모습

▲ 조가비

◀ 머리그물 착용 상상도(카비용 동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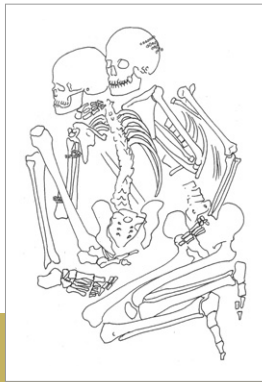
② 성인 여자와 청소년의 합장무덤

; 그로뜨 데 장팡 *Grotte des Enfants* 유적

- 시 대 : 후기(2만 5천년 전)
- 유적위치 : 이탈리아 발지 로시 동굴군

이 유적은 1858년부터 알려지기 시작해서 20세기 초까지 여러 차례 조사가 이루어졌다. 전시된 인골은 1901년 후기 구석기 문화층의 맨 아래층 불땀 자리에서 출토된 성인 여자와 청소년의 매장 인골이다. 이 매장 유적은 구덩이를 파고 2구의 시신을 함께 묻었으며 남자 머리뼈 주변에는 머리를 보호한 듯 보이는 4장의 납작한 돌이 묻혀있었다. 여자는 40세 이상 되었으며 얼굴은 아래쪽에 파묻혀 있었고 뒤통수가 위쪽으로 향한 채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오른쪽 팔에는 돌날석기가 발견되었다.

남자는 15~17세 가량의 청소년으로 오른쪽으로 다리를 약간 굽히고 오른쪽 팔은 성인 여자의 몸 아래쪽에 놓여 있었다. 엉덩이 위와 왼손에는 밀개가 있었으며 이 유적 또한 머리 부분에 붉은 흙이 뿌려져 있다. 여자의 뼈가 남자보다 위쪽에 놓여있고 특히 남자의 손이 여자의 몸 밑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아,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묻혀 있던 것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성인 여자(좌)와 청소년 남자(우)의 모습



▲머리치장용 조가비



▲얼굴이 아래쪽에 묻혀있는 모습

③ '구석기시대의 왕자'

; 아렌느 깡디드 *Arene Candide* 유적

- 시 대 : 후기(2만년 전)
- 유적위치 : 이탈리아 리구리아 지방 사보나 시 근처

1942년 이탈리아 리구리아 지방 사보나 시의 해발 90m 동굴에서 발견된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의 매장 인골이다. 인골은 키 170cm, 12~14세 가량의 소년이다. 소년은 북~남 방향으로 곧게 펴서 묻혀있었고 머리, 발 부분은 돌을 쌓아서 보호하였다. 이 인골은 매우 화려한 부장품과 치장으로 구석기시대 화려한 매장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혀 '영프린스 young prince'라는 별명이 붙여지기도 하였다. 주변에서 수많은 다람쥐 꼬리뼈가 발견되어 '다람쥐 꼬리 사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머리에는 수백개의 조가비가 붙어있는 머리그물을 착용하였고, 목걸이와 왼팔에는 조가비로 만든 팔찌 두개를 차고 있었다. 무릎에는 상아로 만든 걸개가 좌우 대칭이 완벽하여 상아 장식의 장화를 신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오른손에는 25cm 길이의 돌날을 쥐고 있으며 동물뼈로 만든 굼막대 4개가 어깨, 가슴, 왼쪽 옆구리에 놓여있었다.

카비옹 동굴과 마찬가지로 소년의 뼈 주변에서 붉은 흙이 많이 발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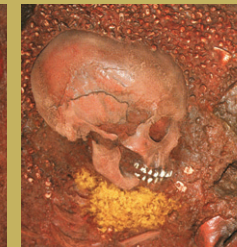
◀(좌)매장 인골 모습 / (우)매장 당시 상상도



▲돌날을 쥐 모습



▲치레걸이용 굼막대



▲머리뼈 부분



▲펜던트처럼 목에 걸려있는 조개

〈참고자료〉

400
200
100
50
20
10
5
3
1
(단위:만년 전)

<p>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루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타웅아이)</p> 	<p>호모 하빌리스</p> 	<p>남전원인 상기란인 북경원인 대려인</p> 	<p>역포인 네인데르탈인 용곡인</p> 	<p>크로마농인 승리산인 만달인</p> 
---	---	---	--	--

인류
진화과정

오스트랄로피테쿠스 (400~100만년 전)	호모 하빌리스 (250~170만년 전)	호모 에렉투스 (160~20만년 전)	중기 구석기(20만~4만)	후기 구석기(4만~1만)
<p>‘남방의 원숭이’ 뇌용량 : 300~500cc</p> <p>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최초의 인류로, 지금까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파렌시스(<i>A. afarensis</i>, 일명 ‘루시’),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아프리카누스(<i>A. africanus</i>, 일명 ‘타웅아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로부스투스(<i>A. robustus</i>) 등 최소한 7종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약 4백~2백 만년 전 사이에 아프리카의 동부와 남부에 주로 살았으며, 신체적으로는 키가 작고 등이 구부정한 모습을 띠고 있었다. 뇌용량은 약 300~500cc 정도로 지금의 침팬지나 고릴라와 비슷하다.</p>	<p>‘손재주 좋은 사람’ ‘도구를 사용한 사람’ 뇌용량 : 530~800cc</p> <p>호모 하빌리스는 긴팔, 튀어나온 얼굴, 130~150cm 가량의 작은 키 등 신체적인 면은 유인원과 아직 비슷하다. 하지만 뇌용량이 커지고 얼굴과 머그니가 작아지면서 사람의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전과 달리 손으로 물건을 짝 쥐거나 정확히 다룰 수 있게 되어 이들은 최초로 석기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p>	<p>‘곰선사람’ 뇌용량 : 900~1,100cc</p> <p>호모 에렉투스는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똑바로 서서 걸을 수 있었다. 뇌용량 역시 증가하여 ‘주먹도끼’와 같은 석기를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으며, 불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불의 사용으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었으며, 사냥한 고기를 구워먹기도 하였다. 이는 곧 이들이 아프리카를 빠져나와 다른 곳으로 이동하여 살 수 있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인도네시아의 자바원인, 중국의 북경원인 등이 여기에 속한다.</p>	<p>호모 사피엔스 (20~5만년 전) ‘지혜로운 사람’ 뇌용량 : 1,300~1,600cc</p> <p>호모 사피엔스는 상당 기간 호모 에렉투스와 공존하며 살았으나, 뇌용량이 현생인류에 근접할 정도로 발달하여 호모 에렉투스와는 많은 차이를 보인다. 뇌용량의 증가로 이들은 도구를 제작하는 능력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전된 면을 보인다. 무리를 지어 사냥을 하고 다친 동료를 보살피 주기도 하였다. 특히 죽은 사람을 매장하고, 여러 부장품을 함께 넣어주는 지금의 ‘장례의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도 이때부터이다.</p>	<p>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5만년 전) 뇌용량 : 1,350cc</p> <p>현재에 사는 우리들은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에 속한다. 이들은 ‘돌날기법’이라는 발달된 석기 제작기술을 구사하여 경제적 안정과 인구증가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들은 문화적으로도 발전을 이뤄 여러 예술행위를 하였다. 동굴 또는 바위에 천연염료를 이용하여 그림을 그렸고, 불이나 상아를 이용하여 여인상 등을 조각하여 자신들의 정신세계를 표현하였다.</p>

참고자료

- 이건무·조현중, 『한국美재발견 선사유물과 유적』, 솔출판사, 2003.
 국립대구박물관, 『머나먼 진화의 여정-사람과 돌』, 2005.
 국립제주박물관, 『선사시대 문화의 재발견』, 2005
 석장리박물관, 『석장리박물관 개관기념 도감』, 2006.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 (주)사회평론, 2007.
 김성명 외, 『한국미의 태동 구석기·신석기』, 통천문화사, 2008.
 한국구석기학회(손보기), 『석장리유적과 한국의 구석기문화』, 학연문화사, 2009.
 석장리박물관, 『또다른세상으로-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 2010.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인류의 옛 흔적 돌의시대』, 2011.
 울산암각화박물관, 『2011 특별기획전 구석기 미술의 신비로움』, 2011.
 전곡선사박물관, 『전곡선사박물관』, 2011.

석 장 리 박물관 순회 전

2012년 검단선사박물관 특별전

「또다른
세상」

구석기인들의 죽음과 매장

총괄_김상원

기획·진행_신은미, 장민영, 김선미

전시지원_박용운, 최경진

디자인·편집·인쇄_광창문화사

발행일_2012년 8월

발행처_검단선사박물관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동 고산후로 12번길 7

대표전화_(032)440-6790